

고령의 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신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관한 후향적 연구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나리 · 최수정 · 이관현 · 김진국 · 황승덕

배 경 : 최근 우리나라에서 식습관의 변화와 함께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자에서 당뇨병의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당뇨병에 의한 만성 합병증의 유병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고령의 당뇨병 환자에서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말기 신질환으로 진행할 경우 대혈관 합병증에 의한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따라서 신기능의 악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규명하여 적극적인 치료적 조작을 통해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당뇨병성 신증은 구미 각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만성 신부전의 으뜸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 중 제 2형 당뇨병의 신기능의 악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한 연구가 드물다. 저자 등은 고령의 제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생존율을 평가하기 위해 혈액 및 생화학 지표들을 분석하여 신기능 저하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에 관한 후향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방 법 : 2001년 2월부터 2003년 7월 사이에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에 내원하였던 65세 이상의 제 2형 당뇨병 환자 67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를 조사하였다. 신생존율을 알아보기 위한 추적 조사의 종료 시점은 혈청 크레아티닌이 두 배로 상승한 시점과 혈액투석, 복막투석 또는 신이식 등의 신대체 요법을 시작한 시점으로 정하였다.

결 과 : 대상 환자 67명 중에서 17명이 추적 종료 시점에 도달하여 신생존율은 74.6%이었다. 단변량 분석을 통해 신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독립변수로는 혈색소, 혈청 알부민, 혈청 크레아티닌, 혈청 인, 요산 그리고 24시간 요단백 배설량이었다고 24시간 요단백 배설량이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이었다. 다변량 분석의 결과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와 24시간 요단백 배설량이 의미 있는 위험 인자이었다. 24시간 요단백 배설량이 1 g 미만인 군에서 1 g 이상인 군에 비하여 신생존율이 6.08배 증가하였으며 24시간 요단백 배설량이 1 g 이상인 군에서는 30개월까지의 신생존율이 16.9%이었고 1 g 미만인 군에서는 78.4%로 두 군간에 현저한 신생존율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결 론 : 고령의 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단백뇨, 기저시의 신기능 저하 상태가 말기 신질환으로 진행하는데 영향을 주는 예측 인자들이며 이들 중에서도 단백뇨가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